

보도자료

글라슈테, 2025 년 3 월

행복에 대한 100 가지 아이디어. 한국의 예술적인 보물

랑에 운트 쾨네가 드레스덴주 아트 컬렉션(Dresden State Art Collections) 및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동 전시회를 지원합니다.

2025 년 3 월 15 일부터 8 월 10 일까지, 드레스덴주 아트 컬렉션에서 "행복에 대한 100 가지 아이디어. 한국의 예술적인 보물(100 Ideas of Happiness. Art Treasures from Korea)"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5 년을 통틀어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500 년에 걸쳐 제작된 180 여 점의 유물을 감상하며 정교한 장인 정신을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장인 정신의 유산은 완벽을 기해 기계식 걸작을 제작하는 독일 시계 매뉴팩처인 랑에 운트 쾨네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실 고분 금관총 에서 출토되니 오브제: 골드 및 제이드로 제작된 신라의 유명한 왕관 및 골드 벨트;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드레스덴 왕궁(Dresden Royal Palace)의 왕실 스테이트 아파트먼트(Royal State Apartments)에서 선보이는 "행복에 대한 100 가지 아이디어. 한국의 예술적인 보물" 전시회는 다양한 문화 간의 흥미로운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진귀한 주얼리, 왕실 의상, 귀중한 부장품, 정교한 도자기 작품과 같이 삼국 시대(기원전 1 세기~서기 7 세기)부터 조선 시대(1392 년~1897 년)까지 한국의 다양한 예술적 유산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의미, 그리고 행복을 표현하는 예술적인 방법에 주목하는 특별한 전시를 감상해 보세요.

이번 전시의 제목은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두 가지 심볼을 다양하게 표현했던 조선 후기(18세기)의 병풍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왕궁과 부유한 집을 장식했던 이같은 서예 작품은 행복, 정신적 깨달음, 장수를 상징합니다. "행복에 대한 100 가지 아이디어"는 삶의 기쁨, 지혜, 번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상징합니다.



"행복과 장수에 대한 100 가지 아이디어", 조선시대 후기(18세기). 사진: 드레스덴주 아트 컬렉션, 드레스덴 민족학 박물관(The Dresden Museum of Ethnology), 사진: 실비라 페레이라(Sylvia Pereira)

이번 전시회에서는 금관총에서 출토된 귀중한 부장품 등 다양한 하이라이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유물은 1921년, 한반도 동남부에 걸쳐 있었던 신라 왕국(기원전 57년~서기 935년)의 옛 수도였던 경주에서 발굴 조사 중에 출토되었습니다. '황금의 도시'로 불렸던 경주의 찬란한 역사는 한국의 국보로 손꼽히는 뛰어난 주얼리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이어 주는 다리이자 정신적 측면에서 주얼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금관총의 명성 높은 왕관 또한 이를 보여 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5세기 후반, 탁월한 장인 정신과 디테일에 집중하는 세심한 손길로 완성된 왕관은 최고급 골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장식, 시퀀, 제이드 펜던트, 엠보싱 처리된 홀마크가 돋보입니다. 신성한 힘을 상징하며 신라 왕과 왕실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화려한 나무가 금관의 핵심 모티브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금관은 내세에서의 권력과 번영을 약속하는 귀중한 부장품이었습니다.

예술 작품에 깃든 장인 정신은 오늘날 랑에 운트 쾨네에서 실천하는 작센주의 정밀 워치메이킹에 대한 랑에 운트 쾨네의 CEO 빌헬름 슈미트(Wilhelm Schmid)의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독학하면서도 다양한 한국 문화의 장인 정신에 대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징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번 전시의 모든 작품은 삶과 아름다움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남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완벽을 기해 완성되어 시계의 소유자 또한 개인적인 아이디어와 가치를 부여하는 랑에 운트 쾨네의 시계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훌륭한 프로젝트를 위해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드레스덴주 아트 컬렉션의 그린 볼트 & 아머리(Green Vault and the Armoury)를 책임지는 마리우스 빈첼러(Marius Winzeler)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7 년과 2018 년,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왕이 사랑한 보물' 전시를 개최했고, 여기에서 선보인 드레스덴 컬렉션의 보물들은 한국 대중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5 년 만에 독일에서 한국 미술을 아우르는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처럼 야심 찬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파트너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드레스덴에서 한국의 화려한 예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랑에 운트 쾨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재홍 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왕이 사랑한 보물'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화려한 전시회에 이어 드레스덴에서 소중한 국보급 문화재를 전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뛰어난 장인 정신과 심도 깊은 의미가 돋보이는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은 전시회의 제목처럼 방문객들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장인 기술은 한국에서 유서 깊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일의 수많은 관람객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한국 예술을 알리고, 나아가 양국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감상을 증진하는 문화 간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랑에 운트 쾨네 소개

드레스덴의 워치메이커 페르디난트 아돌프 랑에는 1845년 자신의 워치 매뉴팩처를 설립하면서 작센주 정밀 워치메이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랑에 운트 쾨네의 고급 회중시계는 전 세계 컬렉터들이 가장 탐내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회사를 몰수당하면서 랑에 운트 쾨네의 명성은 거의 사라지는 듯했으나, 1990년 페르디난트 아돌프 랑에의 증손자 발터 랑에가 랑에 브랜드를 재건했습니다. 오늘날 랑에 운트 쾨네에서는 주로 골드와 플래티넘 등의 고급 소재만을 사용해 연간 단 몇천 점 내외의 제품만을 한정적으로 제작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무브먼트 역시 매뉴팩처 내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장식되고 조립되어 랑에 운트 쾨네 시계만의 특별함을 더합니다. 1990년부터 73개의 매뉴팩처 칼리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랑에 운트 쾨네는 전 세계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최고의 위치를 <wzn>고수하고 있습니다. 손목시계에 최초로 대형 날짜창을 탑재한 LANGE 1과 정밀한 점핑 숫자 플래이트를 갖춘 ZEITWERK가 주요 제품으로 손꼽히며, ZEITWERK MINUTE REPEATER, DATOGRAPH PERPETUAL TOURBILLON과 TRIPLE SPLIT과 같은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은 전통적인 예술을 보다 수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랑에 운트 쾨네 매뉴팩처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2019년 출시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ODYSSEUS는 매뉴팩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갑니다

보도 관련 문의

안드 아인혼(Arnd Einhorn), 글로벌기업커뮤니케이션 & 제품 PR 책임자
전화번호: +49 (0) 35053 440 | 이메일: presse@lange-soehne.com

온라인 정보

alange-soehne.com | facebook.com/langesoehne | youtube.com/user/alangesoehne
instagram.com/alangesoehne | [#alangesoehne](https://twitter.com/alangesoehne)

에셋 다운로드

press.alange-soehne.com